



9. 15. ~ 18일 강화 역사박물관에서 민속놀이 체험 강화군, '함께 나누는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 운영

강화군이 추석에 맞아 강화 역사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에서 민속놀이 한마당을 펼친다.

추석 당일인 17일은 휴관하고 15일, 16일 18일 추석연휴 중 3일간 진행되는 민속놀이 한마당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박물관도 관람하고, 전통 놀이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박물관 내부 로비에는 소형 윷놀이판을 설치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투호, 제기차기, 딱지치기, 널뛰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현재 강화자연사박물관에서는 '강화의 새와 유리창 조류 충돌' 기획 전시회가 개최되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강화지역에서 발견되는 283종의 산새와 물새들의 사진과 세밀화를 볼 수 있으며, 나무로 조각한 아름다운 새, 카빙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해마다 유리창 조류 충돌로 새들이 사라져가는 이유와 새의 눈을 통해 유리창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습할 수 있는 영상실도 준비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세계유산인 강화고인돌도 볼 수 있고, 전통놀이 체험과 특별 전시도 관람할 수 있는 강화 박물관을 찾아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KTX 용산역에 추석맞이 '강화 농특산물' 특설매장 운영

강화군이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 맞이해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KTX 용산역 특설매장에서 '강화군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설매장 운영은 한국농업경영인 강화군

연합회(회장 주혁돈)와 함께 진행한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진행한 특설매장 운영 호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우수한 강화군 농특산물을 한자리에 모아 용산역을 찾는 서울 시민과

귀성객에게 선보인다.

KTX 용산역에서 진행되는 '강화 농특산물' 특설매장의 이번 주요 품목은 ▲강화섬쌀 ▲강화섬약쑥 ▲강화속노랑고구마 ▲강화농특산물 등을 활용한 가공 제품 등이다.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은 “강화군의 농특산물은 해풍 좋고, 청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만큼 맛과 질이 뛰어나다”고 강화특산물의 자부심을 표출했으며, “다가오는 명절 가족, 친지들과 함께 강화농특산물을 먹고, 나누며 즐거운 명절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맞이 강화 농특산물 특설매장 운영



추석맞이 강화 농특산물 특설매장 운영

한연희

“강화군민의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는 강화군수가 될 것”



“강화군민의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는 강화군수가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한연희 전 평택부시장을 임명하고 공천장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사무총장실에서 「10·16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을 열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셨음에도 문제는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총선 이전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이 정말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지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는지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어기는 정권

의 정치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금융치료를 하듯 국민의 뜻을 어기는 윤석열 정권에는 선거치료가 필요하고, 우리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특정 지역의 대리인이 아니라 민주당을 통째로 대표하는 소중한 존재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 그리고 고남석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인천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민주당의 후보로 선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반드시 본선 승리로 보답하고 부시장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화군민의 삶과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는 강화군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연희 예비후보는 10만 강화건설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1. 인구소멸 위험 대비 - 젊은이

가 있어야 어른이 행복합니다.

2. 경로당 활성화 등 어르신 공경 - 인본을 찾는 일입니다.
3. 건강한 경제 기반 - 지역화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4. 천원택시 도입 등 - 이용자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바꾸겠습니다.
5. 갯벌과 환경을 새로운 먹거리로 재창출하겠습니다. 등을 발표했다.

한연희 후보는 “강화군은 발전이 더디고 인천광역시로부터 교통·교육·경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게다가 군민들이 서로 편가르기로 군민화합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군수의 잔여 임기는 1년 9개월여지만 최소한 강화의 30년을 내다보고 10만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공약을 만들었다. 공직 34년의 경험과 경륜 그리고 7년간 지역 텃밭을 꼼꼼히 일궈온 뚝심으로 선거운동 하고 있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또 “선거운동을 하

보면 이번에는 초당적으로 사람을 보고 뽑아야 한다”며 “인물론을 거론하는 군민들이 많아 그런 응원으로 힘을 얻고 있다. 오직 강화군민과 강화발전을 위한 진심이 통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한 당선 의지를 표명했다.

한연희 후보는 강화 양도면이 출생으로 경기도 가평군 부군수, 경기도 평택시 부시장을 거쳐 수도권 2천5백만 명의 짓줄인 팔당상수원을 총괄하는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을 역임한 후, 2021년부터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를 설립, 강화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준비된 강화군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한연희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활동에 맞춰 ‘준비된 강화군수 한연희’라는 유튜브도 개설, 활발한 선거 활동 영상과 공약 비전 등을 업로드 할 예정이다.

선거사무소는 강화군청 앞 이레빌딩 5층에 마련됐다.

34년의 행정경험을 통한 경영마인드로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강화군을 만들겠습니다!



출마선언문 전문

강화군은 전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자랑스런 역사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가진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한때는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화군은 위기입니다. 아이윌음 소리가 그치고,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강화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고령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편가르기로 양분되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기후변화로 농업기반이 흔들리고, 쌀값과 한우값 폭락으로 코로나 상황보다 더 심한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은 민간 부분의 창의성을 존중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군민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공공분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강화군청을 군민 중심으로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군수 직속 행정쇄신T/F팀과 민원처리 기동반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즉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1번 한연희는 이당 저당 따지지 않고 역대 군수들이 잘한 정책은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한연희는 오로지 군민행복, 오로지 강화발전입니다.

오늘은 1차 핵심공약에 대한 추진방향을 발표하겠습니다.

1. 인구소멸 위험 대비 - 젊은이가 있어야 어른이 행복합니다.

청년 일자리, 결혼, 주택, 출산, 아이돌봄, 아이들 교육사업은 100년 대계를 위해 그 어느 공약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양질의 청년일자리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스마트 농업지원 확대, 친환경기업 유치, 청년창업 지원 확대, 신혼부부에 주택 무료 제공 등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2. 경로당 활성화 등 어르신 공경 - 인분을 찾는 일입니다.

노인들의 최상의 목표는 존엄한 임종입니다. 점심 지원은 물론 임종의 존엄성이 확보되는 효(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비 증액과 더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점심 지원, 여가·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 건강한 경제 기반 - 지역화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앙시장과 품물시장에 신재생에너지(RE100)를 보급하여 전기료 70%까지 절감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품물시장 야간 프리마켓,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과감하고 촘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형농기계 구매 지원, 농민장 활성화, 인삼 등 농축수산물 세계명품화, 수산물 가공 판매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벼농사 대체 사료작물 지원 사업 확대는 쌀 생산량 조절과 수

입사료 대체효과를 가져올 획기적인 공약입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추진은 영종 - 강화간 연륙교 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공약으로 인구 10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4. 천원택시 도입 등 - 이용자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바꾸겠습니다.

천원택시 도입, 3000번 버스 정상화, 알미골 사거리 등 상습정체 개선, 김포시와 협력하여 출퇴근 시간대 초지대교 - 약암, 강화대교 - 김포대학 구간을 수신호 체계를 개선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전철5호선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5. 갯벌과 환경을 새로운 먹거리로 재창출하겠습니다.

갯벌의 생태환경적 가치는 1ha당 9,990달러로 농경지 96달러의 100배가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갯벌생태계와 어족 자원을 이용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후보별 공약은 대동소이합니다. 누가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 한연희는 일머리를 압니다.

저는 34년 간의 공직생활을 수도권 정책, 규제정책, 일자리 정책 등 굵직한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훈장을 세 차례 받았습니다.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규제개

혁 부분에서 섬김이대상 수상, 경기도 일자리 정책과장 재직 시 23만8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종합대상을 받은 바 있으며,

평택 부시장 역임시에는 세계 최대 삼성반도체공장 건설 TF추진단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지금 평택시 경제는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와서는 7년 동안 역대 군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한 민원을 다수 해결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는 교통면과 삼산면에 다리가 놓여 졌는데도 배삯을 포함하여 받던 불합리한 택배 요금을 정상화 시키는데 앞장섰으며, 강화군의 반대를 이겨내고 비에스병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데 앞장서서 해냈습니다.

이밖에도 수 십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에 발벗고 나서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동안 한연희는 선거철이 아님에도 마을 구석구석 찾아 다니며 듣고 본 현장의 목소리는 “새로운 강화를 만들어 달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가평부군수, 평택부시장,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등 34년의 행정경험을 통한 경영마인드로 강화군을 투명하게 경영하고, 땀 흘려 일하는 세일즈맨으로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강화군을 만들겠습니다!

인구 10만의 도시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에 군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준비된 강화군수 기호1번 한연희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성원에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수 후보 **한연희**

* 이 내용은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신 후보의 기사를 게재함을 알립니다.

박용철

강화에 '소통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 강화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닦겠습니다



오는 10월 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됐다. 소감은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13명의 예비후보가 경쟁을 벌였고, 1차와 2차 경선에서 승리하며 국민의힘 공천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강화군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또한 지지를 얻지 못한 분들께는 남은 선거 과정을 통해 더욱 가까이 다가갈 예정입니다.

워낙 많은 후보가 경쟁을 벌이다 보니 일부에서는 경선 과열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천이 마무리된 만큼 우리 국민의 힘이 철저히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2차 경선이 끝난 직후부터 경쟁했던 거의 모든 후보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배준영 국회의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현재는 대다수가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상황입니다.

공천은 끝이 아니라 그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더욱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강화군민 여러분을 찾아뵙 계획입니다.

■ 주요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

1차와 2차, 3차까지 순차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당내 경선을 맞이했습니다. 기존에 발표한 공약들은 정부여당과 인천시, 그리고 강화군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컨셉이었습니다.

추석 이후부터는 분야별 공약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먼저 '청년·신혼부부 지원'의 경우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청년희망복비 지원 (18~39세, 전입신고 대상) ▲장학관 미이용 대학생 학기 중 주거비 지원 ▲장학금 등 장학 혜택 확대 등 다양한 공약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영유아 돌봄·교육 지원'의 경우 ▲만12세 이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강화군립 키즈카페 특화 놀이 프로그램 지원 확대 ▲강화군 공공심야 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교육 시설 지원 확대 ▲보육교사 등 돌봄·교육 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축·어업 및 자영업자 지원'의 경우 ▲강화섬쌀 등 지역 특산물 고급 브랜드화 및 판로 확대 지원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자금 지원사업 도입 ▲벼 보급종 종자대 지원 확대 및 특수작목 종자대 지원 ▲거점별 벼 전문 육묘장 조성 ▲인천시 농업보조금 보조율 상향(60%→70%) ▲농가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수도권 유통시장 활용 첨단스마트팜단지 조성(청년농 유입 연계) ▲강화군 축산업 특화지구 조성 지원 ▲축사 지붕 태양광 설치 지원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및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어선 정박을 위한 계류시설(부잔교) 확충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기계상해보험 농민 부담금 지원 확대 ▲어선, 어업인 재해보험료 부담금 지원 확대 ▲성어기 항포구 출입시간 연장 및 조업 합계선 확대 ▲해양자원 적극 활용을 통한 어민 소득 증대 ▲펜션·농어촌민박·식당 등 자영업 지원 확대 ▲귀농·귀어자 등 주거시설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밀착 정책 강화' 분야에서는 ▲북한의 대남 방송 대책 마련 및 소음 피해 지원(방음 창호 설치 지원 등)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확대 운영 ▲어르신 교통 바

우처 확대(택시 이용 연계) ▲헬스케어 경로당 확대 설치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등 공동주택 지원 확대 ▲품물시장 누수 문제 해결 등 전통시장 적극 지원 ▲화물차·건설기계 공영차고지 조성 ▲깨끗한 광역상수도·도시가스 공급 확대 ▲취약계층 화재 예방 및 에너지절약 설비 지원 ▲치매 어르신 등 고령자 돌봄 확대 ▲우회 도로 확충으로 강화읍 미래지향 인근 교통체증 해결 ▲품물시장 도로 여건 개선을 통한 정체 완화 ▲길상권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조성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더 자랑스러운 강화'를 위해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출향인사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강화의 얼 바로 세우기(고조선·단군 등 강화만의 특색 부각, 향교·강화학파 등 강화 고유의 정신 유산 연구·보존·수집 지원,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종교역사기념사업 지원, 강화 지역 독립운동가 기념사업 지원 등) 등 다양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읍면별 맞춤형 일자리 및 지역특화형 일자리 발굴·육성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확대 및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공익형·사회서비스형 어르신 일자리 지원 규모 확대 및 보수 인상 등 일자리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공약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3선의 강화군의원과 인천시의원 등 14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화군민들과 동고동락해왔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단 없는 정치 경험과 강화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 요인입니다.

여기에 강화군민 누구나 편하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점과 군민들께서 저의 진정성과 성과를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것도 선거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강점을 무기로 곧 시작되는 본선에서도 더욱 많은 군민과 대화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정치에 왕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소신과 철학을 갖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걷다 보면 군민들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 군민들께 전할 말이 있다면

강화군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분열,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어르신과 청년들의 소통 단절이 강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강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의 시대를 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군민 통합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소통과 통합'은 제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강화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모아진 강화군민의 힘으로 강화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닦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강화군민의 효자손'이 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 박용철



김병연

약하고 힘든 사람의 편에서 일하는 젊고 활기찬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함께 또 친근하게 일하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강화군의 현실이 절실합니다.

정치구조의 변화 강화군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물결이 절실하여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그리고 약하고 힘든 사람의 편에서 일하는 군수가 되고 젊은 강화로 활기찬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함께 또 친근하게 일하겠습니다

강화군이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인구소멸지역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며 지역민의 소득 또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중요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도권경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공원녹지법 등등 법적인 부분이 강화군 발전에 발목을 죄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강화군 실정에 맞게 바꾸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사활을 걸어야 할 일입니다

군의원과 인천시특별보좌관으로 있으면서 타지역 발전 여건을 잘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강화군의 열악한 현실의 벽을 너무 잘 알게되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놓고 철도는 먼 미래의 일이지만 가장 먼저 불합리한 법부터 강화군을 옥죄고 있는 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행복강화카드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목욕비, 식사비 ,교통비, 영화비등 집에만 계시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드는 현실을 감안하여 밖으로 나오셔서 움직이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건강이며 복지이고 사회적비용(세금)이 더 적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는 영화, 도서비, 교육시청, 박물관이용등 교육과 건강한 신체를 위한 활동에 비용을 지불하여 활기찬 강화군 청년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객 나라가 혈

안이 되어 움직이듯 지금 대한민국 지방도시들은 스포츠 대회유치를 사활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유치되면 식당, 숙박, 편의점, 고용, 농산물판매 등 지역의 흥보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영향력으로 다시찾는 곳이 되어가고 있어 서로 앞다투는 것입니다.

이제 강화는 더 젊은 이미지를 내세워 활기찬 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강화읍권 숙박시설 신설 확충, 각종대회 시설 확충하고 도로시설 정비, 등 고용이 확대되며 건설 경기 또한 활발해 지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상공인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 전국규모 포럼이나 잼버리등을 유치하여 강화군이 사람이 차고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지로 이어지고 문화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비보잉 대회, 레저대회 등도 유치 및 신설하여 활기차게 만들고 소득증대와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직불금 지급은 물론 농, 수, 축, 임업등 판매를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강화군 농, 수, 축, 임업의 제품들은 품질이 우수하나 판로와 유통구조를 잘 몰라 브랜드가치를 올리지 못합니다, 잘 생산한 우수한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SNS 판매, 유통구조 교육등 수당을 신설하여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행복카드를 도입하여 지역카드 등에 어르신(65세이상) 월 5만원, 청년(17~25세) 월 5만원을 지급하여 어르신은 교통비, 목욕비, 영화, 여가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

고 청년들에게는 교통비, 영화, 도서비, 역사,문화박물관이용료 등을 지원하여 복지와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카드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도 잡는 효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 우리강화군은 4면이 바다입니다 그동안 그 큰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바다를 통하여 관광, 수산물 판매, 주변 숙박 및 음식점등의 관광 교육 및 소득자원으로 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것은 잘 보존하겠습니다 바다를 잘 활용해서 군민들의 재산권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게 미래에 물려주겠습니다.

민주당의 분열시키려 나왔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세 번씩 단독후보로 단수공천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강화의 변화가 꼭 필요한 이 중요한 시기에 경선을 통하여 민주당을 알리고 군민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는 경선을 안하는 것이 맞나요???

저는 민주당 발전을 위해 경선을 치러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민주당이고 기초하고 생각하여 지난번 선거도 반드시 잘못된 부분을 평가를 통하여 책임을 지고 고칠 것은 고치자고 하였으나 오히려 저를 대의원과 운영위원에서 배제되시키고 단독방에서도 차단되는 현실을 꼬집고 앞으로도 민주당원이라는 마음으로 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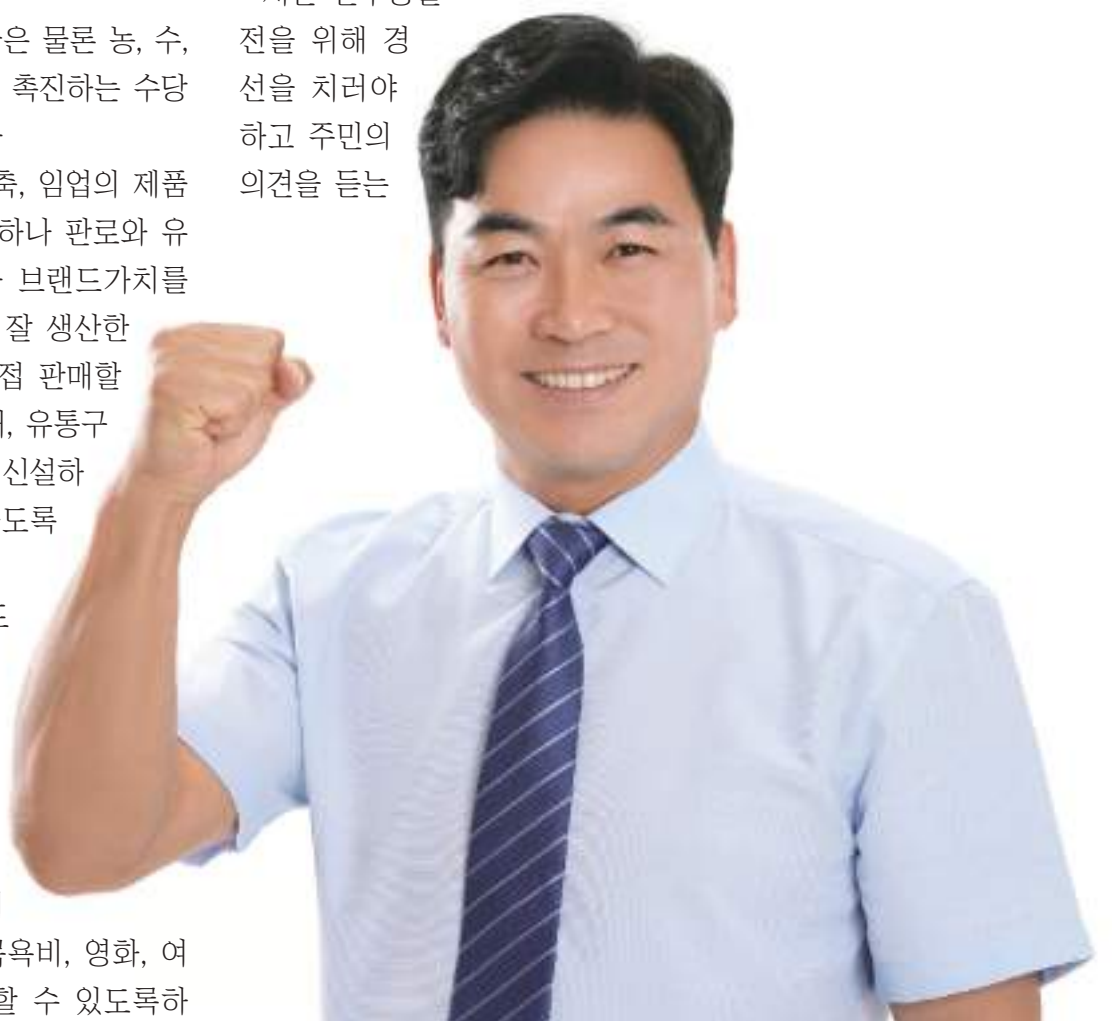
군의원과 인천시특별보좌관으로 있으며 타 지역의 현안도 면밀히 살피게 되었고 무엇보다 강화군의 현안 사항을 잘 알고 인천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인천시내는 무한히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강화군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인천시의 시야에서 너무 멀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강화군 발전에 저해가 되는 법을 시작으로 새로운 강화군 활발한 강화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고 더 낮은 자세에서 군민의 입이되고 발이되겠습니다

친근하며 대화가 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소속 강화군수 후보 김병연



* 이 내용은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신 후보의 기사를 게재함을 알립니다.

안상수

한강물을 끌어들이 증명한 안상수가 압도적인 능력으로 강화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안상수 10.16 강화군수 보궐 선거에 위대한 강화 군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저는 제15대 계양·강화군(갑)으로 강화와 인연을 맺은 후 제19대 서구·강화군(을) 그리고 제20대 중·동·강화·옹진 국회의원으로 강화에서 3선을 하며 군민 여러분과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제20대 총선 때는 무소속이던 저를 당선시켜 주셨듯이 강화 정치의 주인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군민 여러분이란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께서 당선 시켜주신 저 안상수는 군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강화에 농업용수로 쓸 한강물을 끌어들이고 제가 20대국회에서 정부 사업으로 확정시켜 착공이 눈앞에 있는 등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저와 군민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들을 무시하고 지역의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채 이해할 수 없는 공관위 구성부터 무리한 경선 일정의 조정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불합리한 경선 기준 제시까지 스스로 공정하지 못함을 보란 듯이 증명하였습니다.

오만방자한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관위에 성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의심스러운 경선을 단호히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화의 주인이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 안상수, 기존 정치권의 폐단을 거부합니다.

대신 강화 군민 추천을 받아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습니다.

우리 강화는 단군 이래 5천여 년 동안 고유한 문화를 형성해 온 곳입니다. 한때 고려의 (임시) 수도로서 그 자부심이 크고, 몽고와 서양 외세의 침략에 완강하게 항전했던 것처럼 자주정신과 애국심이 큰 곳입니다.

이처럼 강화 군민의 뜻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신중히 고민하고 인물을 중심으로 뽄뽄 뭉치는 현명한 선택을 해오던 곳으로 네 번의 무소속 군수 당선의 사례를 보아도 그렇고 저 또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당선시켜 주신 강화 군민의 주권 정신은 정말 위대합니다.

이런 강화에서 한강 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였고, 결국

5천 년 역사상 강화를 물 부족 없는 풍요로운 고장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저와 군민 여러분들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를 위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당 지도부가 합심하고 군민의 뜻을 모아 이루어낸 성과로서 저는 지금도 강화 전체에 넘실거리는 한강 물을 볼 때마다 저절로 벅차게 가슴이 뛰니다.

**군민 여러분,
저 안상수와 함께라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연간 7천만이 이용하고 있는 인천공항에서 불과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강화에 다리를 연결하면서 강화 남단 600만 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함으로써 세계적인 강화로 도약하도록 지난 인천시장 재임 중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송도와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를 투자유치부터 준공까지 해낸 안상수가 2010년 '강화-영종 대교' 기공식까지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사업입니다. 2015년 제가 국회의원 당시에 당시 유정복 행안부 장관과 추진하기로 합의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후 모든 정치인과 후보들이 국비만 바라보며 업뎃을 못 내고 있는 '강화-영종 대교'사업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7천억에 불과한 강화 예산으로 경상경비 계속 사업을 제외하면 신규 사업 예산은 1천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시 예산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비는 그 사용을 위한 평가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킨 리더쉽으로 민자 유치를 통해 해결해야만 건설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듯 '강화-영종 대교' 건설은 안상수가 마무리해야 될 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이 완성되면 상주 인구 3만 도시가 되

어 청년일자리도 1만 5천개 늘어나는 효과로 직장 때문에 나가 살던 자식들이 다 돌아오고

세계적인 인재들이 함께하는 강화가 될 것입니다.

제가 추진하는 모든 건설사업에 강화 군민과 강화건설업자 등 지역 사업자의 50% 의무할당제를 실시하여 강화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뺨 뚫린 교통과 좋은 일자리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떠나는 강화'가 아닌 '돌아오는 강화'가 될 겁니다.

강화는 위기입니다! 강화군수 잔여임기 1년 9개월은 연습시간이 아닙니다. 저 안상수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저까지 나서겠습니까!

이어서 저는 강화 복단에 '동아시아 축구센터'를 2년 내 조성하여 강화 방문 3천만 관광객 시대를 만들어 군민 소득 7만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가 시작했던 '강화-영종 대교'와 마찬가지로 제가 시작했던 '계양-강화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도 해내겠습니다. 교통의 혈맥을 뚫어서 인구 10만이 유지되는 매력적인 강화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강화읍 연장'은 오세훈 시장과 제가 원활하게 소통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강화와 김포해안도로를 직결하는 신규 대교'도 건설하여 교통 병목 현상을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이러한 번영 속에 강화의 1 조원 예산증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그 밖에도

- 해안도로 신규 개설 및 확장하여 명품도로로 완성하겠습니다.
- '내 손안의 강화 여행 플래너 - 터치 마이 강화'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하여 숙박, 요식업, 카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루겠습니다.

취임 다음 날부터 즉각 일할 수 있는 후보 안상수가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일해서 보답하겠습니다.



- 농지 이용 규제를 혁파하는 ‘농지이용합리화추진위원회’를 통해 농지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민들의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농촌을 활기차게 만들겠습니다.
- 역사 관광 체험 마을을 조성하여 전국 학생들의 체험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쌀가격 정상화를 위해 30억 긴급 지원 및 인천 이음몰 등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 지원을 통해 우리 강화 섬쌀을 다 팔아 없애겠습니다.
- 강화의 10대 특산물품 판매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홍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담하겠습니다.
- 낙후된 어판장과 부대시설 개선하고 마케팅 지원하겠습니다.
- 어르신 라이프 케어를 책임지는 ‘효돌이 효심이PM’ 500명을 선발하여 강화의 어르신을 각별하게 모시겠습니다.
- 강화의 사교육 해결을 위해 강화 온라인 학습플랫폼을 운영하고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 길상면에 행복센터 2호점을 조성하겠습니다.
- 각 면 별로 이발소, 세탁소 등 생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하겠습니다.

- 마을안길 조정 사업을 하겠습니다.
- 파크골프장 108홀 조성하겠습니다.
- 석모도 온천 정상화 및 다양한 대형 관광 인프라 유치하겠습니다.
- 엄빠들이 더 행복한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하겠습니다.
- 초중고생과 어르신들의 군내버스 교통비 전면 무료화를 실시하겠습니다.
- 헬스케어AI안심경로당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 주요 도로변 나들침터를 조성하고 팝업스토어 등 문화소비공간이 되는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 국제해변마라톤 등 다양한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 세계무형문화엑스포 등 국제 행사를 유치하겠습니다.
- 어촌 뉴딜 사업 확대하겠습니다.
- 100세 장수축하금 300만원 지급하고 건강검진 지원하겠습니다.
- 관내 배달종사자(라이더)에게 유상운송보험 지원하겠습니다.

안상수가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상수가 빠르게 완성하겠습니다.

강화의 안정적인 통합을 위한 선택은 안상수 그리고 강화 발전 책임지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유한 사람 또한 오직 안상수 뿐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 안상수, 누구보다 우리 당을 사랑합니다.

29년간 몸담은 우리 당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저는 잠시 탈당을 하려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천시장에 당선되었고 칠흑 같던 문재인 정권 속에서도 풍전등화의 우리 당을 지켜내어 결국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우리 당의 근간인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약속 드립니다. 당선 즉시 복당하겠습니다.

돌아와서 못된 패거리 정치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우리 당을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당선 후 복당하는 사례가 다반사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제

가 다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군민께 공천 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저 안상수는 취임 다음 날부터 즉각 일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고 미루기만 하던 큰일을 해내는 후보입니다.

일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안상수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소속 강화군수 후보 **안상수**

안상수가 걸어 온 길

출생 : 1946년 5월 28일, 충남 태안군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 명예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서울대학교 학사
- 인천중학교, 경기고등학교

경력사항

-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인천시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
- 미래통합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 제20대 국회의원 (인천 중구동구 강화군옹진군/미래통합당)
-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 의장
- 자유한국당 조찬기도회 회장
- 제19대 국회의원 (인천 서구강화군을/무소속)
-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4대 인천광역시 시장
- 제3대 인천광역시 시장
- 제15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강화군갑/한나라당)



* 이 내용은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신 후보의 기사를 게재함을 알립니다.

전전 재정운용 확립 및 군민체감 정책 제고 중점 강화군,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첫걸음



본예산 편성 사전교육

강화군이 지난 2일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본격 돌입했다.

부서별 회계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내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운영 방향,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안내, ▲예산편성 사전 절차 안내, ▲세입·세출예산 입력 요령 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2025년도 본예산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사업 반영, 사전 이행절차 수행, 예산심의 등 본예산 편성 절차를 마무리한 뒤 12월경 강화군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승섭 행정복지국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국세 및 지방세수 부진 현상이 지속되는 등 세입여건이 어려워 건전재정 기조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관행적 사업,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군민 체감형 사업에 투자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 강화별밤야행(夜行)'대성황 강화군, 지역문화유산과 함께하는 복융합 축제

강화군이 지난 6일과 7일 강화읍 원도심 용흥공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4 강화별밤야행'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야행 행사에는 2일간 약 13,000여 명의 군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며 축제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9월, 가을 초입에 동서양 건축양식의 조화를 상징하는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을 배경으로 한 '별밤야행' 무대공연은 한 폭의 그림을 자아내며 관객과 공연자가 하나가 되었으며, 강화읍 원도심만의 매력을 한껏 뽐내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별밤초롱 등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얻었으며,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아기자기한 야행 포토존에서 저마다 다양한 사진을 찍으며 축제를 즐겨 눈길을 모았다.

특히, 인근 상가 및 야간 플리마켓에 참여한 업체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들었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활기를 되찾았다”며, “강화읍 원도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적은 처음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원도심에 다양한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화별밤 전경



강화별밤 먹거리운영



강화별밤 청사초롱만들기

6년 만에 주민화합의 장 마련 '하점면민의 날 기념 건강 걷기대회' 성황리 개최

강화군 하점면(면장 박인상)은 지난 7일 '제9회 하점면민의 날 기념 건강 걷기대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행사는 주민들의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공연으로 시작되어 기념식에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한 주민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건강 걷기대회가 이어져 주민들은 면사무소를 출발해 삼거천 반환점을 돌아오는 코스를 걸으며 건강을 챙기고 마을 경관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걷기대회 이후 경품 추첨 행사는 더욱더 즐거운 시간으로 서로 격려와 축하를 해주었다.

나훙관 체육진흥후원회장은 "6년 만에 개최된 면민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인상 하점면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하점면민의 날 기념 건강걷기대회

안전한 선원면 함께 만들어요! 선원면 노인자원봉사단, 교통질서 캠페인 실시

강화군 대한노인회 선원면분회(분회장 김선하)는 지난 6일 선원면사무소 일대에서 올바른 교통질서 준수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선원면 노인자원봉사단은 각 리별 경로당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로, 정기적으로 각 리를 순회하면서 무단횡단 금지 등 안전한 교통 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활동해 왔다.

김선하 분회장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며 캠페인을 통해서 앞으로도 안전한 선원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광석 선원면장은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며 안전한 선원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원면 노인자원봉사단 교통질서 캠페인

종합대상에 성악 명창부 황승환 씨 수상 제12회 강화 전국국악경연대회 성료

제12회 강화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지난 7일 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성악, 기악 2개 분야로 구성되고 일반부, 학생부, 단체부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238명(173개팀)이 참가했다. 9월 2일 온라인 사전 심사를 거쳐 행사 당일 본선과 결선에 총 69명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특히, 국악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어린이부도 별도 진행했다.

대회 결과 성악 명창부 황승환 씨(국회의장상)가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대상은 성악 단체부 오옥순 외 10명(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상했으며, 각 부문별 총 31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강화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우리 전통문화예술 발전의 발판이 되는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국악경연대회

함께 만들어요! 양성평등, 행복동행 강화군 강화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 개최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미경)는 3일 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2024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 축하 행사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9개 여성 단체를 대표하는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단체 회원 및 군민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김미경 회장은 "오늘의 행사를 계기로 불우이웃 돕기 및 강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이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행사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양성평등주간행사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를 통한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기대 강화군, 산업재해 예방 위해 현업사업장 점검



현업사업장 점검



현업사업장 점검

강화군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현업사업장 순회 점검을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한다.

안전총괄과장을 반장으로 안전보건담당, 안전관리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16개 현업부서 및 13개 읍면의 소속 현업작업장 현장을 순회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업장 근무환경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 ▲종사자 보호구 착용 점검 ▲사업장 유해 물질 취급 현황 및 경고표지 부착 여부 ▲위험 기계·기구 관리 실태 확인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건의사항 청취 ▲근로자

건강상담 및 기초 건강검사 실시 등이다.

군은 점검 시 확인된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관리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게 개선 조치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도·조언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선제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사업장 순회 점검,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화군, 강화천문과학관 관측 행사 개최

한가위 보름달 보러가자! 추석 연휴 14일~18일 4일간



강화천문과학관 달 관측 행사

강화군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강화천문과학관에서 풍성한 보름달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달 관측’ 행사를 오는 14일~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화천문과학관은 지난 5월 1일 옛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탄생한 천문관측 체험시설로, 수도권 가족 단위 방문객을 중심으로 강화군의 이색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미항공우주국 NASA에서 주관하는 세계적 캠페인 ‘세계 달 관측의 밤’을 겸해 진행되며, 보름달이 가장 밝게 뜨는 매년 음력 8월 15일(추석)을 기념해 온 가족이 뜻깊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가 NASA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최신 달 탐사 프로젝트 소개 ▲스마트폰 달 사진 찍기 ▲천체망원경 통해 달 관측하기 ▲달 소원지 붙이기 ▲달 라이브 스케치 ▲대형 달 풍선 포토존 등 달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개방 행사로 진행되는 만큼 별도의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하며, 관람료는 성인 4천 원, 청소년·군인 3천 원, 어린이 2천 원으로 강화군민은 50% 할인혜

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관측회를 통해 우리 지구의 단 하나뿐인 달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나라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천문과학관 달 관측 행사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 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강화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자랑 안방공연 성황리 마무리



노인맞춤 장기자랑 수상

강화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안방공연 ‘노인맞춤 장기자랑’이 지난 5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노인맞춤 장기자랑’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활기찬 삶을 위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재능 등을 마음껏 펼칠 수 있

도록 지난 8월 장기자랑 참가자를 모집해 총 84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약 2주간 연습하고, 작품을 준비해 생활지원사를 통해 작품을 제출했다. 노래, 오르간 연주, 장구, 일본어 회화, 공예, 그림, 뜨개질 등 총 20가지의 분야에서 각자의 재능을 뽐냈으며, 이 중 5명을 최우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가 함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상장을 읽어드리고 소정의 상품을 전달했다.

장기자랑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재능, 흥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니 삶에 활력소가 되었고, 기회가 없어 숨겨만 두었던 재능을 안방공연을 통해 뽐낼 수 있게 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외에도 강화군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 속 재미를 찾아 활기차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 해피데이, 스티커 컬러링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강화군, 전국 우수 치매파트너 활동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제17회 치매극복의날 기념행사에서 강화군 치매안심센터가 최우수상 수상

강화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2024년 우수 치매파트너 활동 경진대회’ 개인 부문 전국 1위 최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치매파트너란 치매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로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돕는 봉사자를 말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영순 치매파트너는 과거 치매안심센터 컴퓨터에서 ‘치매환자 대상 인지 건강 및 돌봄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한 경험

이 있는 치매 환자였으나, 컴퓨터를 통해 인지가 향상되어 이용을 종결했다.

이후,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부인지건강센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활동을 보조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강영순 치매파트너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면 일상생활은 물론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도 가능하다는 걸 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다”며, “우리 사회에 치매를 이겨낸 치매파트너가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매년 ‘우수 치매파트너 활동 경진대회’를 주최·주관하여 지역사회에서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치매파트너를 발굴하여 서면 및 대면심사를 통해 개인 6명, 단체 6팀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 치매는 극복이 어렵고, 치매 환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남아있다. 하지만 치매는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 진행 억제, 개선 가능하고, 나아가 완치까지 가능하다”며, “치매환자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영순 치매파트너가 보여주었으며, 앞으로도 치매파트너를 적극 양성하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연을 담은 강화섬의 맛!

강화도 농특산물



강화군수가 보증합니다!

역사
기교

동검도가 검문하던 섬일까요?

이경수



강화버스터미널 돌비

동검도에 동검북돈대

이 작은 섬에 처음 가본 게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수련회 같은 걸 거기서 했어요. 그 땐 길상면 선두리에서 작은 나룻배를 타고 건너 갔습니다. 맑고 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 전망 끝내주는 자리에 동검국민학교도 있었지요.

1986년에 선두리와 동검도를 잇는 연륙교가 놓였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 실어 나르던 나룻배가 그때 은퇴 당했습니다. 오가기 편해졌지요. 풍광 좋은 섬이라, 관광객이 점점 늘었습니다. 섬에 흐르던 '고즈넉'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폐교된 동검국민학교는 이제 건물조차 없습니다.

연륙교 덕에 사람은 편해졌지만, 건강하던 갯벌이 병들었습니다. 독 쌓듯, 제방 형태로 만든 연륙교라서 갯벌이 서로 끊긴 겁니다. 강물이건, 바닷물이건, 물은 흘러야 하는 데 흐르지 못했습니다.

2018년, 드디어, 끊겼던 갯벌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연륙교 구간 일부, 130m를 헐어내고 물이 왕래할 수 있도록 다리를 새로 설치한 겁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동검도에 동검북돈대가 있습니다.

1679년(숙종 5)에 병조판서 김석주 주도로 48개 돈대가 설치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동검북돈대예요. 택지돈대·후애돈대와 함께 선두보에 속했습니다. 이후 돈대가 더 늘어나 최종적으로 54개가 됩니다.

54개 돈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게 바로 동검북돈대입니다. 둘레가 무려 261m. 다른 돈대의 두세 배 크기죠. 강화 본섬 밖에 설치된 유일

한 돈대이기도 하고요. 돈대 안에 봉수 시설까지 갖춘 점도 특이합니다. 돈대 만들 당시에 봉수대도 함께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봉수대가 추가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동검북돈대는 개성이 뚜렷한 문화유산입니다. 지금은 무너져 형태를 잃었습니다. 돈대 안은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돌무더기가 수북하여 옛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김석주가 돈대를 세우며 지은 이름은 '동검도돈대'인데 어인 일인지 동검북돈대로 개명됐습니다. 북(北)자가 들어가니, 동검남돈대도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부릅니다. 동검남돈대는 없습니다.

나룻배와 행인

강화읍 버스터미널 입구에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고 새긴 커다란 돌비가 섰습니다. 그 뒷면에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詩)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시게 되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왠지 동검도와 어울리는 것 같아 읊깁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

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갑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낚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 시를 지은 분은, 그 유명한 만해 한용운입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시집 《님의 침묵》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문하던 섬?

동검도가 조선시대에 염하(강화해협)로 오르는 배들을 검문하던 섬이라는 얘기가 폭넓게 퍼져 있습니다. 서쪽의 서검도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따져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동검도에 일종의 검문소가 있었다고 기록한 사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검문 얘기가 나오는 현대 자료로는 강화문화원에서 낸 《강도지명고》(1992)와 《강화지명지》(2002)가 있습니다.

《강도지명고》는 "구비설화에 의하면 이조 말엽에 영국(미확인) 사람이니 군인으로 보이는데 강화에 잠입하여 이 섬 동편에 있는 당재라는 고장에서 봉화로써 신호하였고 행인을 검문하였



동검도



동검복돈대

기에 東檢島라 하였다는 말이 전하여지고 또 일설에는 천주교가 비로소 강화에 상륙한 곳으로 이 고장은 검문이 자심하여 타지방으로 포교차 옮겨갔다고 한다.”라고 쓰면서 “신빙성은 희박한 설화이다.”라고 평했습니다.

문장이 좀 어색합니다. 어딘가 앞뒤도 안 맞습니다. 서양인이 들락거리는 조선 말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東檢島라는 지명이 존재했습니다. “신빙성은 희박한 설화이다.”라는 평가가 지당합니다.

《강화지명지》는 이렇게 기록했네요. “동검도는 강화 동남방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와 남해상에서 강화, 김포해협을 거쳐 한강을 통하여 서울로 진입하는 배들을 검문하던 곳이라 하여 동검도(東檢島)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위치를 따져봅시다. 동검도에서 염하 입구까지는 의외로 멍니다. 배들이 동검도를 안 거치고 그냥 염하로 올라가도 제어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서해안에서 올라오는 배들이 동검도까지 갔다가 다시 염하로 간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만약 정말 검문하는 섬이 필요했다면, 동검도가 아니라 황산도라고 해야 그나마 말이 될 것입니다. 한편, 손돌목에서는 일종의 검문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신미양요(1871) 시기에 강화유수 정기원이 조정에 보고한 내용인데 《고종실록》에 실렸습니다.

“미국 배 2척이 손돌목으로 들이닥쳤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수역 내의 포구로서 중요한 요새지입니다. 병인년의 난리를 거친 다음부터 군사를 늘리고 방비를 더 엄하게 해서 설사 우리나라의 관청이나 개인의 배라고 하더라도 통행증이 없으면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병인년의 난리’ 즉 병인양요(1866) 이후 손돌목에서 ‘검문’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염하 입구에 있는 황산도나, 폭이 유독 좁은 광성보 손돌목 정도면, 오가는 배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검도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동검도가 검문(檢問)하던 섬으로 알려진 것은, 사람들이 東檢島의 ‘檢’(검찰할 검)자 뜻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서 말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퍼지고 점차 살이 붙으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東檢島·東黔島·東檢島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동검도의 공식 한자가 東檢島이기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다른 한자도 함께 쓰였습니다. 먼저 보이는 것이 ‘東檢島’입니다. ‘檢’은 ‘검소할 검’ 자입니다. 김석주가 돈대를 쌓을 때 東檢島라고 기록했습니다. 《속종실록》에도 東檢島로 나와요.

조선 후기에 편찬된 강화의 읍지가 여러 편 있습니다. 읍지에는 동검도 한자를 어떻게 적었나 볼게요.

| | | | |
|---------------|----------------|----------------|-------------------|
| 《강도지》 1696 | 《강도부지》 1760 | 《강화부지》 1783 | 《속수증보강도지》 1932 |
| 東檢島 | 小檢島 | 東黔島 | 東檢島 |

아, 동검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네요. 《강도부지》가 동검도를 소검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강화부지》가 東黔島라고 적었습니다. ‘黔’은 ‘검을 검’ 자입니다. 동검도의 한자 표기로 檢·黔·檢, 이렇게 세 개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강화 읍지마다 동검도와 서검도를 기록했어도 검문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동검도에는 양목장이 있고 서검도에서는 소금을 구웠다는 말 정도만 했습니다.

檢·黔·檢, 이 세 글자를 번역할 때마다 동검도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동쪽의 검소한 섬, 검은 섬, 검문하는 섬! ‘검문’만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다시피, 한자는 한 글자에 한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죠. 검을 검(黔)자는 귀신 이름, 또는 신 이름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단군왕검의 한자 표기는 檀君王儉입니다. 儉자가 김석주가

쓴 東檢島의 儉과 같은 글자입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내포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자가 뜻글자이지만, 소리를 빌려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한자 뜻을 따지는 게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를 한자로 佛蘭西(불란서)라고 쓰잖아요. 여기서 佛, 蘭, 西라는 글자의 뜻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음차(音借)라고 합니다.

동검도의 검(檢·黔·檢)을 뜻으로 풀지 말고, 음차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낸 《인천의 지명 유래》(1998)에 따르면, 檢·黔·檢은 신(神)을 가리키는 우리 고유어 ‘신’의 변형된 형태라고 합니다. ‘신’을 한자로 옮기면서 儉이 되고, 黔이 되기도 하고, 또 檢이 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동검도를 검문하던 섬으로 푸는 것보다 신격(神格)과 연결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막연하나마, 추정하자면, 동검도와 서검도는 뱃사람들이 넓은 바다로 나가기 전에 풍어와 무사 귀환을 비는, 신성한 기도처 정도의 의미를 내포한 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시대에 ‘검문’, ‘검문소’ 이런 말을 쓰기는 했을까요?

《승정원일기》에 ‘검문(檢問)’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쓰임새와 뉘앙스가 다릅니다. 조선시대에, 오늘날의 검문이라는 의미와 비슷하게 쓰인 단어는 기찰(讞察)입니다. 규검(糾檢), 체탐(體探), 수하(誰何), 파절(把截)도 유사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검문이라는 말이 일상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검문소(檢問所)라는 단어는 아예 없었습니다.

‘검문’과 ‘검문소’가 일상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전에는 사실상 쓰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일종의 근대 용어가 ‘검문’이요, ‘검문소’입니다.

따라서 동검도·서검도가 검문하던 섬이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설(說)은,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고 거듭나야될 강화 지역 언론들... 강화군 비판과 감시는 숙명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강화군의 대표적인 지역 언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강화투데이가 9월 17일 창간 3주년을 맞는다. 2021년 창간 신고를 한 후 정직한 언론, 군민의 마음을 읽고 내일을 여는 오늘의 언론을 사시(社是)로 출발했다.

지난 3년간 인터넷으로 24시간 강화군의 모든 정보를 전함은 물론이고 격주로 종이신문을 발행해 다른 언론과 차별화를 꾀해 왔다. 강화군민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강화군청의 행정은 물론이고 강화군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했다. 강화군민의 건강과 사업, 일상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각종 현안과 행사 모임 화제인물을 찾아내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달려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등록금 지원, 오래된 집 수선해 주기 등의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밀착 사업도 해오고 있다.

강화투데이 창간 3주년을 맞아 강화군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 그 위상 등을 다시한번 돌아본다. 현재 강화에는 강화투데이를 비롯한 5~6개의 지역 언론이 강화군 일대를 주요 출입처로 하며 활동하고 있다.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다. 그러나 강화군민이나 공무원들, 그 밖의 관계자들의 기대나 성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은 중앙이나 지역, 지방을 막론하고 또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 거의 모든 매체가 재정적인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

민국의 대표적인 중앙 언론이라 할수 있는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이나 KBS MBC 등도 기존 광고의 매출 격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을 커버하는 나름의 지역 광역권 언론이나 기초 지자체만을 취재하는 지방 언론의 어려움은 더욱 심하다. 요즘과 같은 유튜브와 OTT시대에 누가 올드매체인 방송과 신문을 쳐다보겠는가. 시대 변화에 따른 피할수 없는 현실이다. 재정적으로 어렵다보니 현장을 취재할 기자를 채용하기도 어려워 인력 부족에 허덕인다.

강화군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서 1인이 직접 취재 편집 인쇄 배포를 다하는 언론이 수도룩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언론이 제대로 굴러가는 게 이상하고 또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도 기대할 수도 없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쉽게 유혹에 빠지고 때로는 무리한 방법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언론은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할 수 없다. 다름아닌 3부(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 감시와 견제, 비판이다. 이를 행하지 못하는 언론은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언론을 제4부라 하지 않는가. 오늘날 강화군이 폐쇄적인 군정을 벗어나지 못했다. 외부의 지적에는 언론도 그 책임이 적지 않다. 그 때 그 때 강화군수의 입맛에만 맞는 기사로 홍보만 해주다보니 비판과 견제, 감시 기능은 사라진지 오래됐다.

지역 언론의 또 다른 취약점의 하나는 지나친 정파성이다. 강화군의 경우도 강화군과 강화군수에 밀착한 언론은 상대적으로 군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언론은 재정 지원은 고사하고 취재도 외면당하는 실

정이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강화군수가 바뀌면 지역 언론들도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줄서기도 마다하지 않는다.

오는 10월 16일 강화군수를 새로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누가 신입 강화군수가 될지 강화군과 인천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관심사이다. 전임 강화군수는 광고나 사업 등 여러 가지로 기자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 걸로 알려져 있다. 그에 대한 공과가 적지 않다. 군수가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큰 폐단이다. 문제는 폐단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화군 발전에 크게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군민들에게 군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떠안게 되고 폐단을 고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새로 선출되는 강화군수가 어떤 언론관을 갖고 있을 지도 큰 관심사다. 강화 지역 언론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기 때문이다.

이제 강화군의 지역 언론들도 거듭나야 한다. 진정으로 강화군과 강화군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취재하고 보도해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강화군수가 폐쇄적이고 독단적이며 배타적이고 끼리끼리식의 군정을 펼칠 때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 현실에 비춰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아서 강화의 지역 언론이라 하기에는 낮부끄러운 현실이다. 강화군의 지역 언론은 재정적 어려움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등 주변 환경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최우선적으로 강화군에 대한 비판과 감시로 그 존재감을 나타내야 한다.

강화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36억 원 부과



강화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72,499건, 13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 3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0.78% 소폭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9.23(주문도), 9,24(불음도) 검진 예정 강화군, 2024년 농촌왕진버스 사업 개시!

강화군이 지난 10일 삼산면주민자치센터에서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병의원, 약국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촌왕진버스’ 공모사업에 강화군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의 예산지원과 농협중앙회, 서강화농협이 사업을 주관한다.

삼산면 주민이 150여 명을 대상으로 첫 진료를 실시했으며, 침, 부항, 온열 등 한방치료 및 신경외과 전문의가 치매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진료에는 한방의료 전문단체인 사단법인 햇살마루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군은 앞으로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서도면 주문도, 불음도를 찾아 진료할 계획으로, 검진 대상은 서도면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든지 가능하며, 전문 의료인이 1대 1로 진료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서도면 지역 진료 활동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드림 행복농촌 <농촌왕진버스> 사업



희망드림 행복농촌 <농촌왕진버스> 사업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추석맞이 강화섬쌀 1,000kg 기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왕근)은 지난 30일 하점면사무소, 양도면사무소에 강화섬쌀(10kg) 50포씩 총 100포를 기부하는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공단은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쌀 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기탁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마련된 기금은 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모아 조성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구매한 쌀로 기탁하여 지역 농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송왕근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아끼지 않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추석을 맞이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서정진 기자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추석맞이 강화섬쌀 1,000kg 기부

강화군보건소,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써클캠페인' 진행

지난 6일 강화군보건소는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써클캠페인'을 강화읍 일원에서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자신의 혈압 및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인지하고 관리하여 심뇌혈관질환을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전파된 캠페인으로 질병관리청은 매년 9월 첫째 주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이날 '레드써클캠페인'을 비롯, 감염병 및 치매예방, 구강보건, 금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홍보하여 자기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을 군민들에게 심어주었던 의미있는 캠페인이었다.



보건소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써클 캠페인 진행

2024 강화군수 보궐선거

더 나은 강화를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약속합니다!



사전투표 10월 11일(금) ~ 12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본 투표 10월 16일(수) 오전 6시 ~ 오후 8시

* 10. 14.(월)까지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개표 (투표종료 후 즉시)

* 이 광고는 공익과 행복한 강화를 위해 <강화투데이>에서 무료 제작하였음을 밝힙니다.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투데이 5천부 제작비 중 원고료(2인), DM제작 우편발송료(1천부), 일반배송비(1천부)만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되며, 인쇄비를 포함한 모든 부가비용은 자체제작입니다.